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三道
삼도를 품은 역사마을

부론면

삼도를 품은 역사마을 부론면



원주시역사박물관

(주)도서출판이음

이 교재는 초등학교 3-5학년군 사회과 내용과 연계됩니다.

학년/학기	단 원	학습 내용
3-1	1. 우리 고장의 모습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와 모습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문화유산
3-2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땅의 생김새에 따라 다른 생활 모습,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5-2	1.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 삼국시대의 건국과 발전
	2.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고려의 문화의 발전


원주시마을교재제작위원회
김선애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선임 영진어린이집 원장
김홍배 원주역사박물관 관장
문병선 원주시농촌활성화진흥센터 사무국장
손상달 섬강초등학교 교장
신수진 성불유치원 원장
오원집 원주투데이신문사 대표
정형교 원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유선 강원도의회 의원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자 문
부론면이장협의회
정준선 법천1리 이장, 김영진 법천2리 이장, 박찬성 법천3리 이장, 송치호 손곡1리 이장
한현능 손곡2리 이장, 이준태 손곡3리 이장, 신기영 정산1리 이장, 엄영환 정산2리 이장
이상덕 정산3리 이장, 박윤선 정산4리 이장, 정민옥 흥호1리 이장, 서영복 흥호2리 이장
한만익 노림1리 이장, 장현범 노림2리 이장, 유주희 단강1리 이장, 황서현 단강2리 이장
박승호 부론면 면장
왕현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동진 평원문화연구소 연구원
이진형 연세대학교 교양교육학부 강사
이태중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
황재연 평창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집 필
김유민 부론초등학교 교사
박영식 단구초등학교 교사

글 손서는 작가

책임 편집 ㈜도서출판 이음 서연남
편 집 ㈜도서출판 이음 권경륜
디자인 ㈜도서출판 이음 정아진, 박미나

 '섬도를 품은 역사마을 부론면'은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지향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입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섬도를 품은 역사마을 부론면'은 SDGs 4번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과
 SDGs 11번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이 교재는 초등학교 3,5학년군 사회과 내용과 연계됩니다.

학년/학기	단 원	학습 내용
3-1	1. 우리 고장의 모습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와 모습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문화유산
3-2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땅의 생김새에 따라 다른 생활 모습,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5-2	1.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 삼국시대의 건국과 발전
	2.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고려의 문화의 발전

차례

4 다같이 마을 구경

6 부론 이야기

8 부론 뉴스

10 수난의 역사와 함께한 걸작

30 100년 만의 만남

32 진리가 샘솟는 곳

36 지광국사탐비 수미산

40 물길 따라 흘러 흘러

42 흥원강과 흥원창

44 연결고리

46 다시 빛나는 거돈사지

48 부론을 빛낸 사람

56 색칠해 봐요

삼도를 품은 역사마을 부론면

2021년 12월 초판 발행

퍼넌곳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 제작 (주)도서출판 이음

이 책은 원주 초등학교생들의 사회과 학습을 위해 원주시역사박물관과 (주)도서출판 이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저작권은 원주시역사박물관과 (주)도서출판 이음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같이 마을 구경





01 부론 이야기

부론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보세요.



부론면사무소 1980년



노림리 느티나무 1988년



법천리 법천사지 1968년



우리 마을은
오랫동안 멋진 문화를
간직해 왔어.



정산리 거돈사지 1974년



법천리 서원 마을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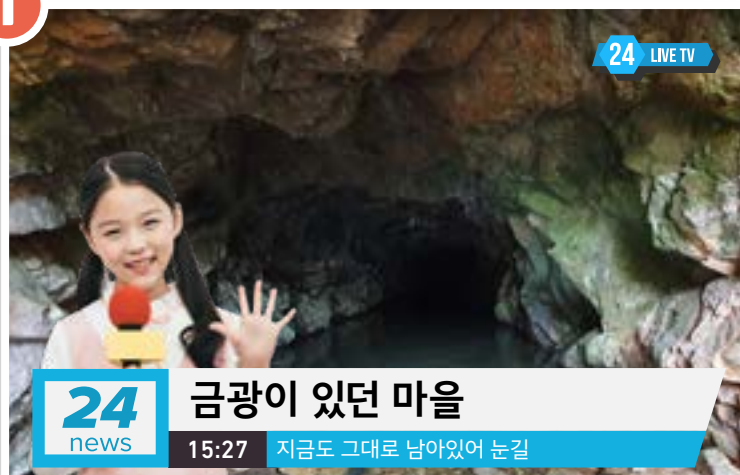
손곡리 전기점화식 1976년



02 부론 뉴스

부론면에 금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마을의 재밌는 소식을 기자가 되어 전달해 보세요.

1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때,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금광 개발을 했습니다. 부론에도 손곡리, 흥호리, 정산리 등에 금광이 있었는데요. 손곡2리에는 아직도 금광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손곡2리에 사는 한현능 이장님을 직접 만났는데, 이장님이 어릴 때는 길에서 금이 섞인 돌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광이 있었을 때는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 마을 주민이 2,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지금은 25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한현능 이장님이 7년 전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보트를 타고 150m 정도 들어갔는데 마치 동굴 탐험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2



기자입니다.

손곡리에 사시는 양재호 할아버지께서는 2021년 7월 9일이 딱 100번째 생신 축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23살에 충주에서 부론으로 장가오신 후 계속 부론에 살고 계시는데요. 두 명의 딸과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흥원창에서 배를 타고 서울까지 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부론에 사람이 많아 시내를 나가면 언제나 왁자지껄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비결을 묻자 할아버지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과자 같은 군것질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3



기자입니다.

부론에는 세 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그 중 김경상님은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어부라고 합니다. 남한강에서 40년 간 어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따라 19살 때부터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어부가 된 것인데요. 주로 새벽에 남한강에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부라고 해서 물고기만 잡는 것은 아니고 강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거나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도 합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에는 잡지 않고 남한강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기도 합니다. 남한강 지킴이인 셈이죠. 김경상님은 강을 지키는 것이 내 할 일 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기자입니다.

부론 5일장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충청북도 충주 양성면 주민 8,000명이 찾던 큰 장이었습니다. 부론 주민들도 경기도 여주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 다른 지역을 가던 상인들이 부론에서 쉬어 가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3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남한강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맨손 고기잡이, 돌탑 쌓기 대회, 남한강 배 타기(뗏목, 모터보트, 줄배), 부론 답사 등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아 지역의 대표 축제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자라면?

친구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우리 마을 뉴스를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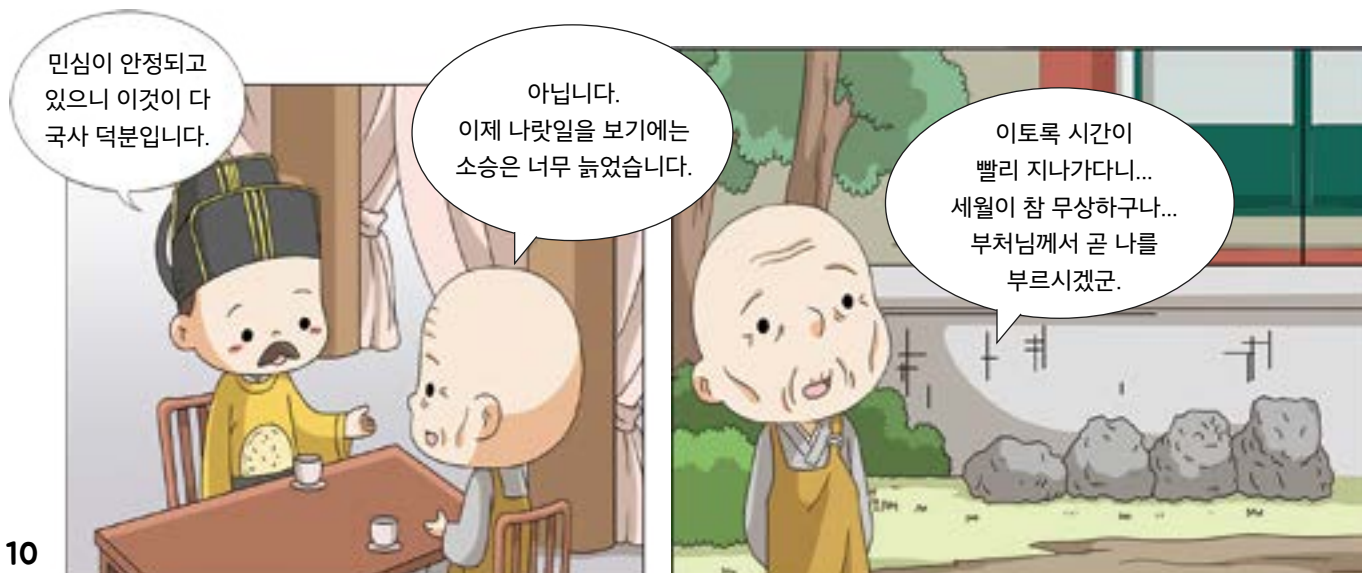
수난의 역사와 함께한 걸작



제작 국립문화재연구원
글·구성 조하진(국립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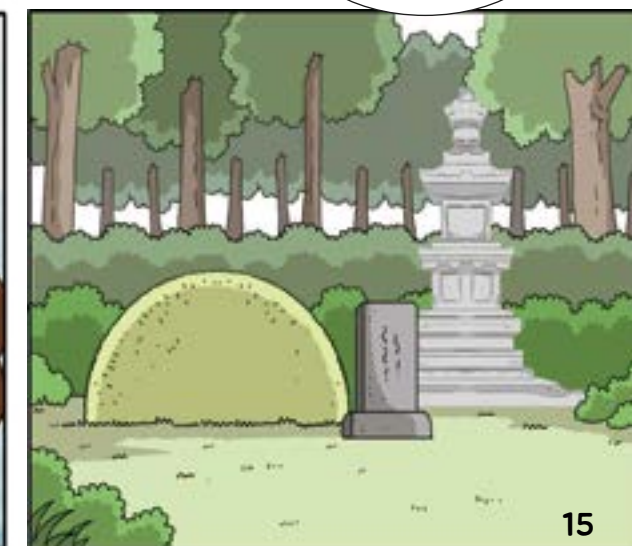
고려 11세기





평화롭던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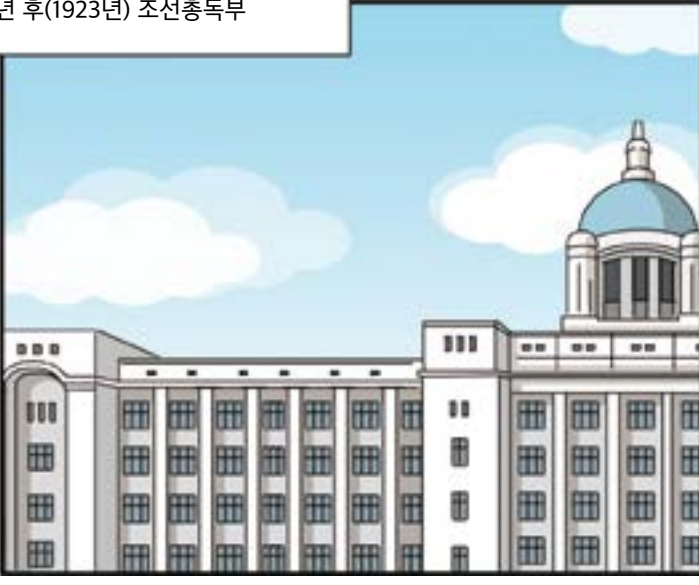


조선총독부(1912년)



박람회(19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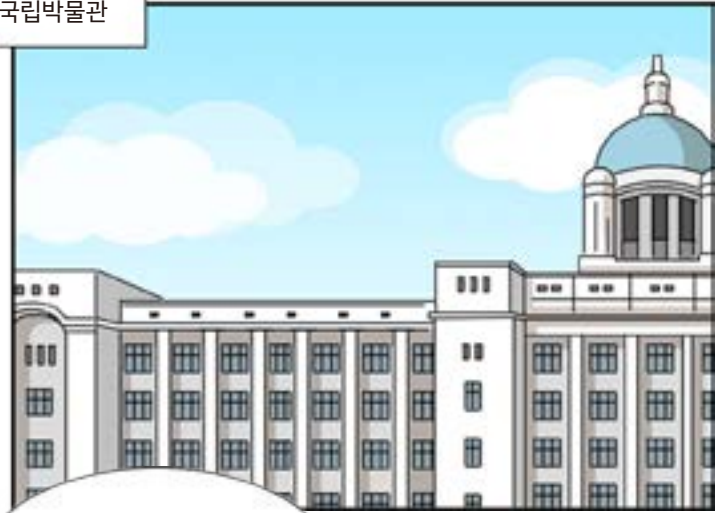
8년 후(1923년) 조선총독부



22년 후 한국전쟁 발발(1950년)







안돼~ 한 달 만에 끝내!
팔도의 장인들 모두 여기로
불러 완벽히 고쳐놓게.

시멘트라는 재료가 좋다고 합니다.
철근까지 넣어 복원하면 기간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 지광국사탑을
최대한 빨리 원상태로 만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확인된 조각은
약 12,000점이고 파괴된 부분이
워낙 커 복원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행이야~

탑이 다시
세워졌어!

시멘트가 뭐야?
진짜 좋은 거야?



탑의 수리는 끝났고 사자들은
도난 위험이 있으니 수장고로
옮겨야 될 것 같군!

네. 수장고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50년 후(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여긴 너무
캄캄해!

탑 옆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여기 온 지도
50년이 다됐네~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사 간대.

그럼, 우리도
탑으로 다시
가는 건가?

2015년 문화재위원회



탑의 훼손이 심해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이기는 하지만 여기
경복궁에 남아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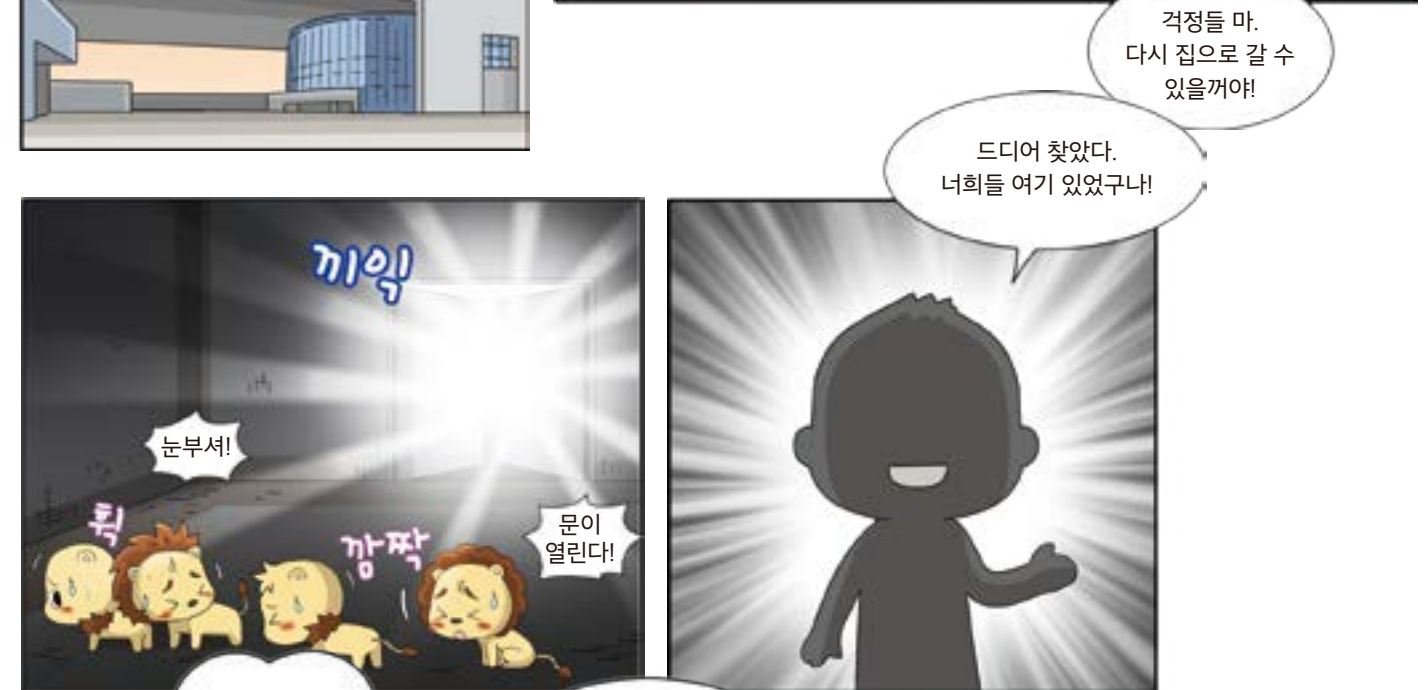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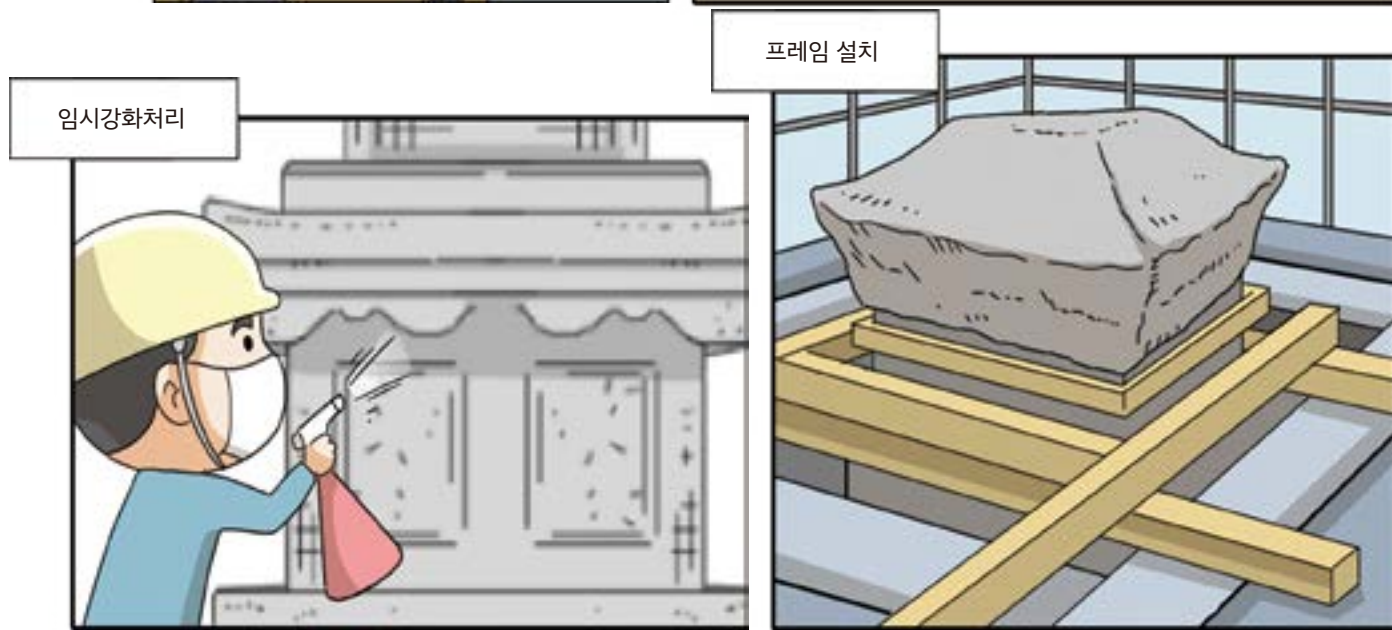
사자라도 가져가서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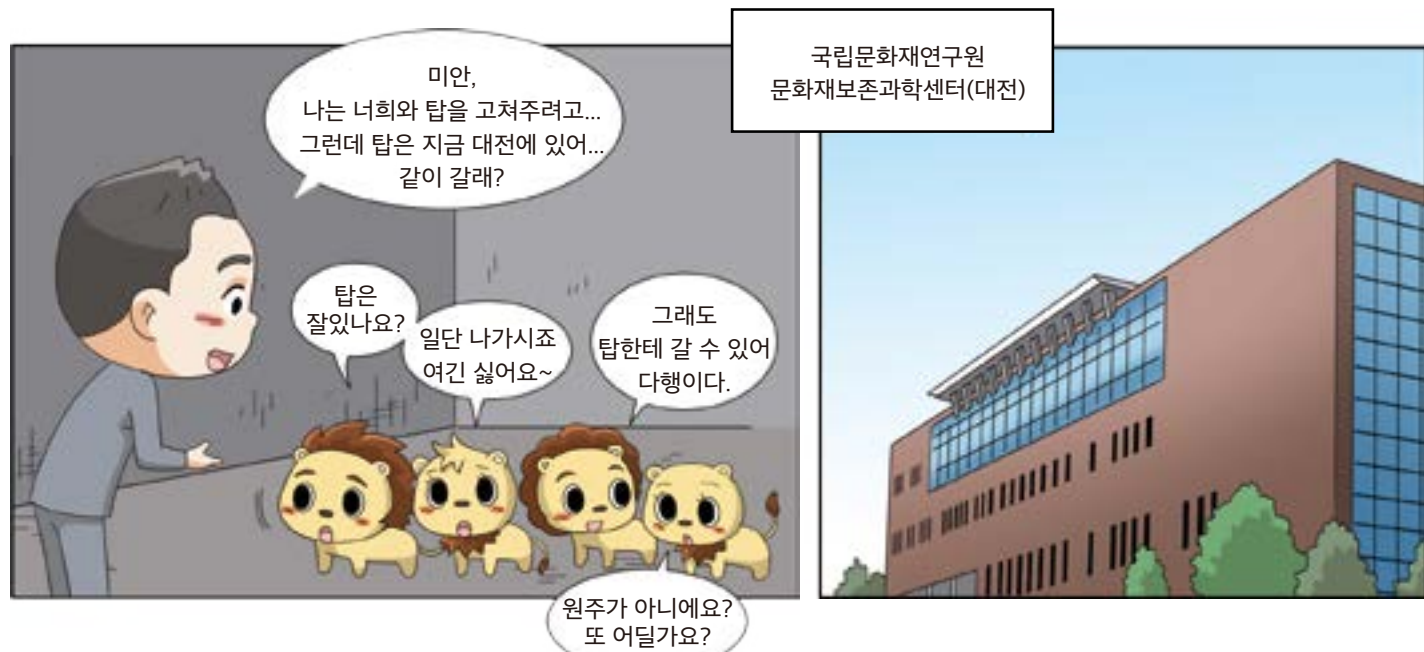


탑의 문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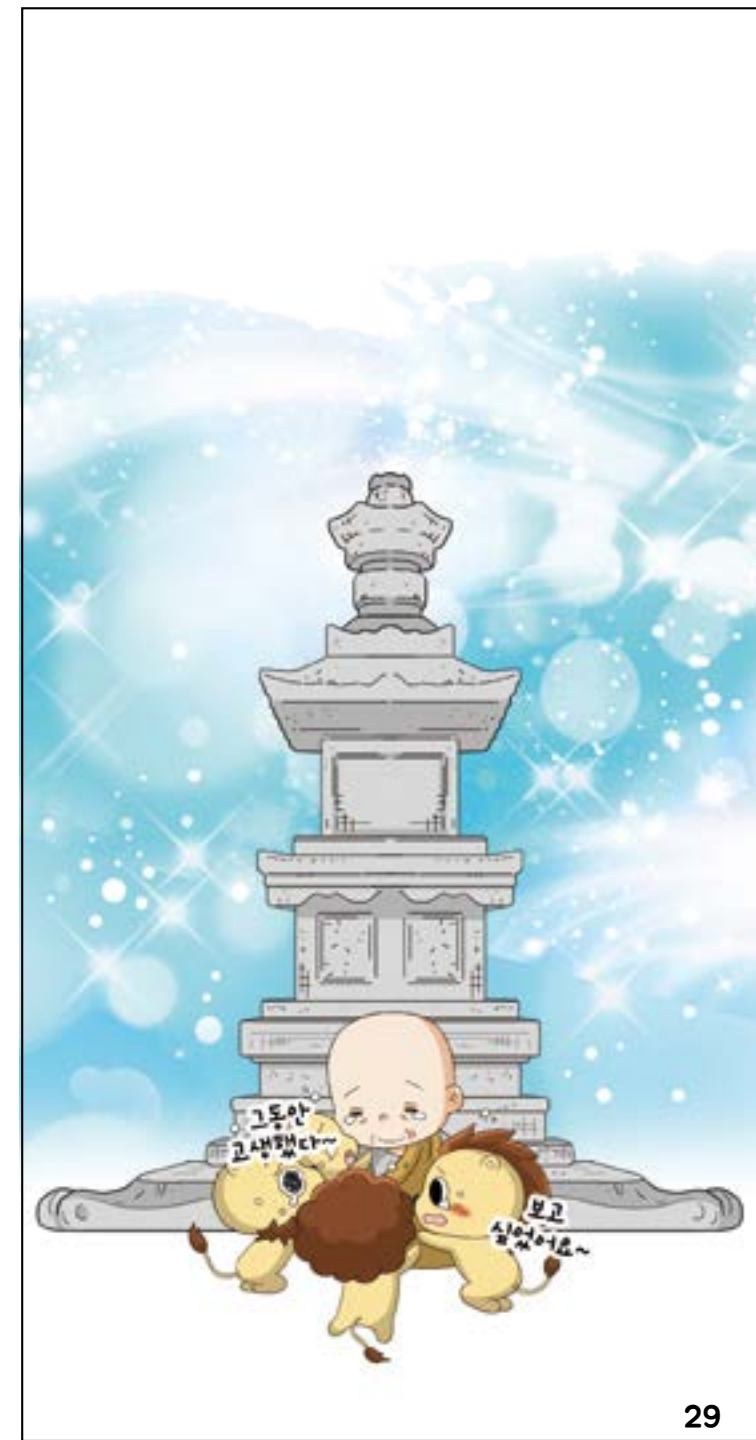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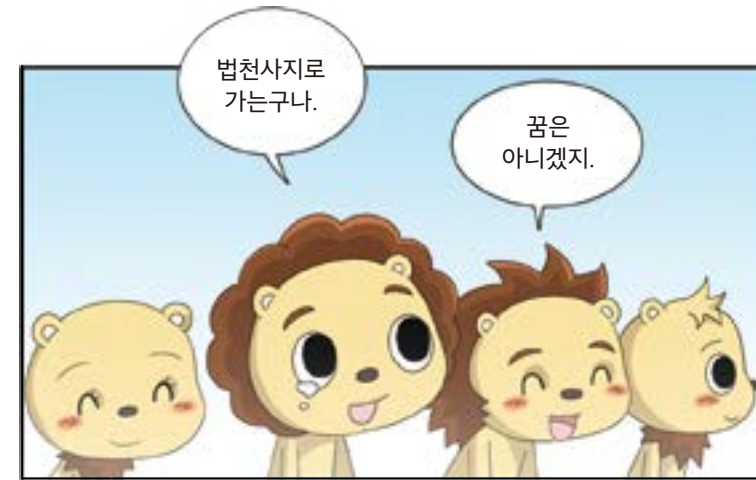


탑을 빨리 보존처리
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03 100년 만의 만남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국보
•고려 시대 승려 지광국사의 사리탑

일본 사람에 의해 원주를 떠나 서울과 일본을 오갔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골동품상인 모리가
원주 법천사지에 왔다가 지광국사탑을 보고
너무 멋진 탑이라고 감탄하며 가져갔어요.
그렇게 원주를 떠났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3년 만인 2024년에 원주로 돌아옵니다.



보존상태가 어떤지 살펴요.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를 없애요.



원래 있던 돌이나 여러 가지 재료와 새로운 재료와 맞춰봐요.



새로운 재료에 조각을 해요.



깨진 부분을 붙여요.



탑은 이렇게
복원하고 있어요.

어서 와~ 부론은 오랜만이지?



1070년
지광국사 돌아가심

1085년
지광국사탑을 세움

1911년
원주 법천사지에서 반출 후
서울 명동으로 이전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경복궁 복귀

1951년
6.25전쟁 폭격으로 파손



1957년
시멘트로 수리·복원

1995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 운동 시작

2005년
문화재청 원주 법천사지 사적 제466호 지정

2007년
지광국사탑 지대석 발견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사자상 발견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 수리 시작

2019년
원주 법천사지로 귀환 결정

2024년
원주 법천사지로 귀환





04 진리가 샘솟는 곳

원주 법천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9

법천사는 ‘법(진리)이 샘솟는 절’이라는 뜻으로
 옛날에 많은 스님과 불교 신도가 공부하기 위해 찾아왔던 곳입니다.
 법천사 입구 동네 이름은 장뜰이에요.
 그 이유는 법천사에 스님이 많아
 장을 담근 장독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천사에는 지광국사탑과 지광국사현묘탑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시기에 안타깝게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요.
 2024년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지광국사탑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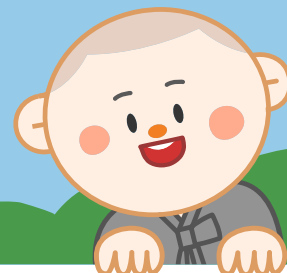


역사이야기

법천사에는 스님과 불교 신도만이 아닌 학자나 선비들이 머물면서 대화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였던 유방선이라는 분이 법천사에서 강의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서거정, 한명회, 권람, 강효문’
 등과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바로 유방선이란 분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탑에게 ♥



내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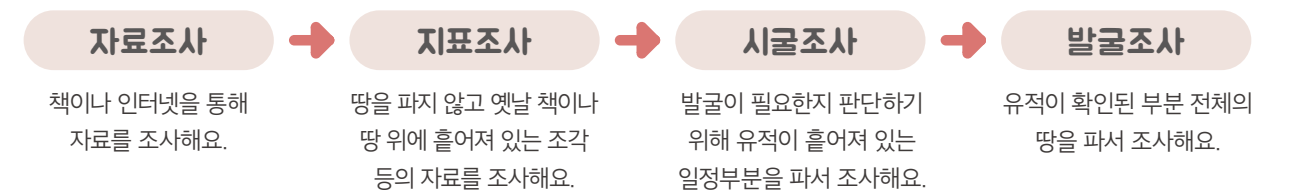
나는 학교 학년 반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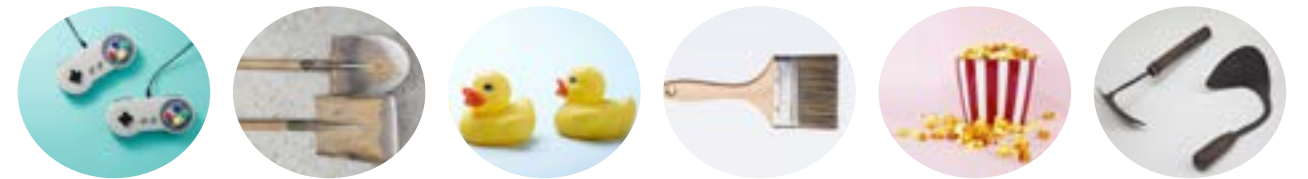
법천사에서 발견됐어요

법천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절로 경주 불국사보다 더 큰 절이었어요.
 원주시는 2001년부터 법천사지 땅 속에 묻혀있는 유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필요한 도구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법천사지 이렇게 조사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주 법천사지 발굴 현장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유물을 붙임딱지로 붙여 보세요.





05 지광국사탑비 수미산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9
 • 국보 • 고려 시대(11세기)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광국사탑비 전체가 정교한 작품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탑비 지붕돌 아래를 자세히 보면 검은 돌에 얇게 새겨진 수미산이 보입니다.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곳입니다.



어떤 문양이 있을까?

38쪽에 있는 탑비의 문양을 보고 아래 설명에 맞는 붙임딱지를 찾아 붙여 보세요.

비천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자 신선으로 신계와 인간세상을 오가며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봉황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면 세상에 나타난다는 전설 속의 새입니다. 봉황은 기러기의 머리, 뱀의 목, 물고기의 꼬리, 호랑이의 등을 가진 상상의 동물입니다.

달토끼

옛날 사람들은 달에 약방아를 찧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토끼를 향아라고 불렀는데, 활을 잘 쏘았던 '예'라는 신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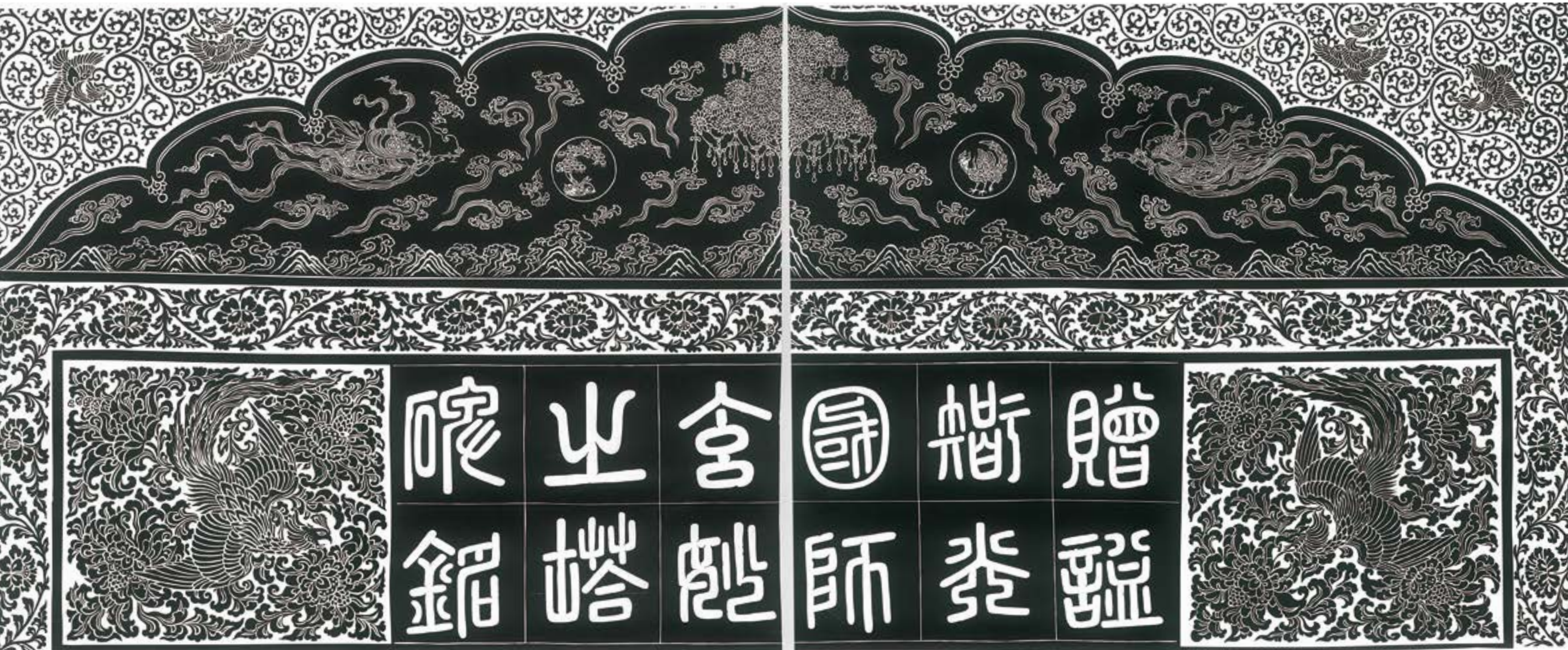
세발까마귀

인간 세상에 열 개의 해가 동시에 나와 온통 불바다가 되었을 때, 활을 잘 쏘던 '예'가 아홉 개의 해를 활로 쏘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때 떨어진 해가 세발까마귀가 되었습니다.

용화수

용이 백 가지 보석을 뱉어내는 모습과 비슷한 나무로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달은 나무입니다.

문양 자세히 보기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06 물길 따라 흘러 흘러

옛날, 나라에서는 강물과 바다의 물길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땅보다 훨씬 편하고 여유로웠겠지요. 부론 지역은 원주의 물길 섬강이
태백에서부터 온 남한강과 합쳐지는 곳입니다. 원주지역이 고려 시대부터
이미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도시 역할을 했고,
그 중에서도 부론면은 가장 많은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흥원창’이라는 큰 규모의 창고와 관리 시설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만큼 활발한
물건의 전달이나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로 여행하는 기회이기도 했고, 오늘날 인터넷으로 편지(메일)
쓰듯이 실제 손으로 쓴 편지를 배편으로 전달하는 곳이기도 했지요.
지도를 보고 남한강(흥원강)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물길을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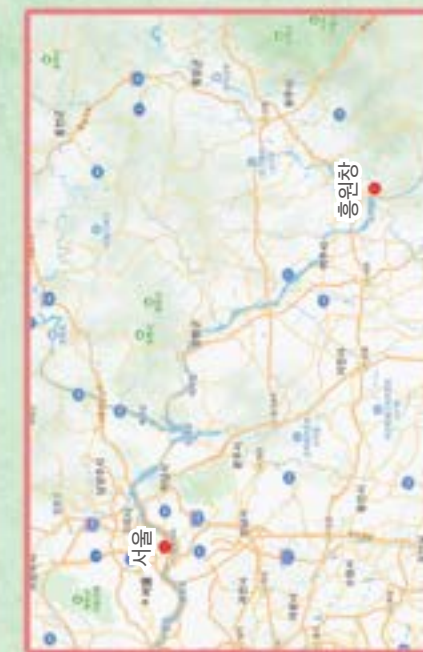


흥원창에 오는 배들은
어떤 물건을 싣고 왔을까요?



역사 이야기

지금은 문을 닫은 단강초등학교의 느티나무는 조선 시대 제6대 왕인 단종이 영월로 유배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갔던 곳입니다. 600살 정도 됐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단종이 이곳에서 쉴 때 주민들이 감자떡을 만들어 드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흥원강과 흥원창

붙임딱지를 붙여 옛 흥원창을 완성해 보세요.



흥원강(남한강)은 원주가 흥(興)하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노을이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은빛두꺼비라는 뜻을 가진
 은섬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고려 시대에는 흥원창에 소금이나
 다른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닻을 내리고 서 있는 배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소금을 사기 위해 영월, 정선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매일 북적북적했어요.



한임강명승도권(정수영 화가, 1796~1797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07 연결고리

고고학자들이 부론 지역을 발굴할 때 많은 물고기 뼈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뼈의 주인공은 바로 민어입니다.

민어는 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닌 바다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부론까지 왔을까요?

옛날에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었던 민어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바닷가에서 가져왔기 때문이죠.

또다른 발견품에는 금으로 된 귀걸이도 있는데요.

신라 시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론면에 살았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옛날도 지금도 부론 지역은 정말 중요한 곳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어요.



역사이야기

남한강 지역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부론초등학교 인근 남한강 근처에서는 빗살무늬토기 파편이 발견되었고, 부론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많은 유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옛날 백제라는 나라의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고, 신라라는 나라에서 활용한 물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론면의 역사와 변화를 보면, 글과 같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던 때부터 나라끼리 경쟁하던 시대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강이라는 물길을 통해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찾기

부론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재입니다. 알맞은 문화재를 이어 보세요.



백제의 높은 계급에서
장신구로 사용했던 황금 귀걸이



백제와 중국이 활발한
대외교류를 펼친 곳을 알려주는
양모양의 청자



원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백제시대 황금신발 장신구



법천사지에서 발견된 유물



거둔사지에서 발견된 연화문 수막새 와당



양모양청자가 발견된 장소



08 다시 빛나는 거둔사지

원주 거둔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 통일신라 시대(9세기)

원주 거둔사지에는 나라에서 보물로 지정한 거둔사지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거둔사지 주변에는 나무와 풀 향기가 가득합니다. 거둔사지 삼층석탑을 살펴볼까요? 탑의 몸체에는 장식이 거의 없고, 옛날 지붕모양과 비슷한 받침돌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탑모양입니다.

어느 절에 가 보아도 반드시 부처님을 모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둔사지의 옛 흔적을 보면 부처님의 상을 올려놓았던 건물터(금당터)에 돌로 만든 불상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클수록 불상도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빛나는 거둔사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 석탑을 공부해봅시다.

상륜
탑의 윗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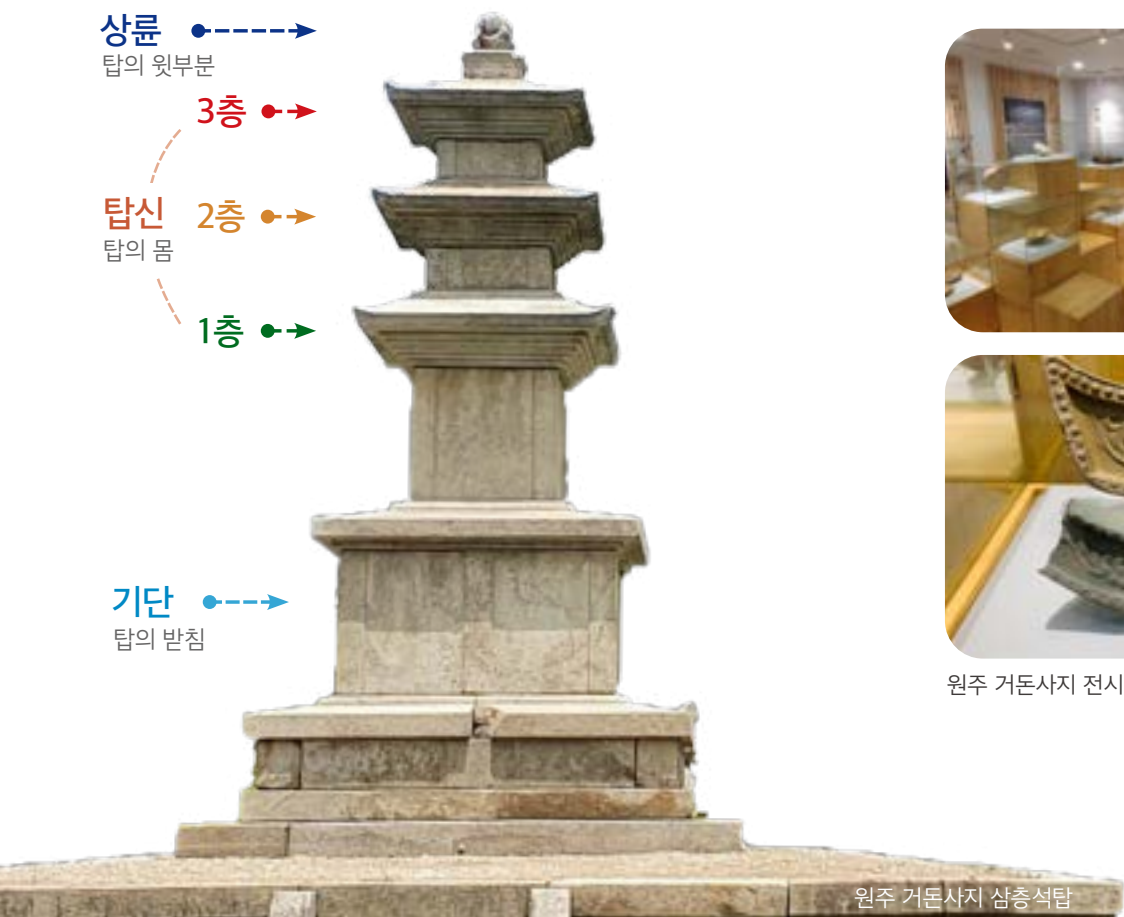
3층

탑신
탑의 몸

2층

1층

기단
탑의 받침



원주 거둔사지 삼층석탑



원주 거둔사지 전시관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보물)

승려 원공국사의 사리탑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사람의 집에 있던 것을
1948년 경복궁으로 옮겨 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당간지주의 기둥을 찾아라

부론에는 당간지주가 2개 있었습니다. 절(사찰) 입구에 세우는 기둥돌(당간지주)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무엇에 쓰던 걸까요? 원주 법천사지와 거둔사지에 각각 있던 당간지주 가운데 거둔사지 당간지주는 현재 기둥 하나만 남아 있어요. 아래 사진에서 당간지주 기둥을 찾아 동그라미 해 보고 나머지 기둥은 어디 있을지 조사해 보세요.



나는 법천사지
당간지주야~



부론을 빛낸 사람

부론은 우리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인물들이 태어나거나 정착해 살았던 역사 깊은 마을입니다. 과거에도 부론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때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되기도 했어요. 각 시대마다 부론을 거쳐 갔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고려 시대 임금의 큰 스승, 지광국사 해린(984~1067)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볼까. 당시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였단다. 불교는 종교였지만 나라의 정치와 문화, 관습, 예술에도 영향을 끼쳤지. 왕과 귀족들도 모두 불교의 가르침을 따랐어. 그래서 훌륭한 승려가 임금의 스승이 되었단다. 사람들은 임금의 스승을 국사라 부르며 존경했지. 원주 출신의 승려로 고려의 불교를 이끌고 국사로 존경받았던 지광에 대해 알아볼까?

지광스님은 16세의 나이에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고 21세에는 승려들을 대상으로 치르던 과거에 합격을 했어. 어린 나이에 세상에 인정을 받은 셈이었지. 이후 더욱 능력을 발휘해서 고려 시대의 불교를 찬란하게 이끌었단다. 그는 성종에서 문종에 이르는 여섯 왕에게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식을 전수했고 왕들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어. 특히 문종은 넷째 아들을 지광국사가 있던 현화사에 머물게 하면서까지 그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했다는구나. 지광국사는 84세에 부론의 법천사로 돌아와 머물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서. 그의 죽음 이후 나라는 그에게 지광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원주 부론면 법천리에 승탑과 탑비를 건립하게 되지. 이것이 바로 국보로 지정된 지광국사탑비와 지광국사탑이란다. 법천사지를 가 보렴. 그곳에서 우리는 나라의 큰 스승이었던 지광국사의 역사적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단다.

손곡 선생님은 관리인 아버지와 관의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났어. 당시 풍습에 따라 천한 출신이라고 차별받았지. 그렇다고 그분이 마냥 세상을 미워했을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표현했어. 조선 시대에는 형식적인 것이 넘쳐났지만 손곡 선생님은 겉치레를 뛰어넘는 시를 쓰면서 자유를 누렸지. 시인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당시 백성의 척박한 삶과 정서를 시로 표현했어. 임진왜란 전후에 고단한 삶을 살았던 당시 백성의 아픔을 노래한 시도 많이 남겼지. 손곡 이달 선생님은 허균뿐 아니라 당시 명나라까지 명성을 떨쳤던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 허난설헌의 스승이기도 했지. 나중에 허균은 스승인 손곡 이달의 전기를 쓰고, 손곡집이라는 시집을 내서 후세에 전했어. 덕분에 지금도 우리가 손곡 선생님의 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란다.

신분차별은 가라. 시를 통해 자유를 얻은 손곡 이달(1539~1612)

조선 시대에 온 소감이 어떠니? 조선 시대는 고려 때보다 신분차별이 엄격한 사회였지. 양반이 아니면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고 출신으로 차별받았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나온 소설이 홍길동전이야. 홍길동전은 조선 시대 양반들의 잘못된 풍습을 꼬집은 소설이란단. 신분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받았던 홍길동이 도적 우두머리가 되어 부패한 정부 관리들을 소탕하고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판타지 소설이란단. 듣기만 해도 속 시원하지?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대. 그 홍길동전을 쓴 이가 바로 허균이란단. 그런데 허균이 혼자서 그런 상상력을 키우고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손곡 이달이라는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럼 손곡 이달을 만나러 부론으로 가볼까? 우리가 조선 시대 부론으로 떠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원주 부론면 손곡리에 정착하여 시를 공부하고 좋은 시를 많이 남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손곡을 자신의 호로 지은 거란다.



부론의 독립운동가 한기악(1898~1941)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왔구나. 한기악 선생님을 만나려면 일제강점기를 통과해야 한단다. 한기악 선생님은 1898년 부론면에서 태어났어. 선생님은 1917년에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 연해주 일대로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이회영, 신채호 등으로부터 공부를 계속하라는 권유를 받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 도쿄에서 유학을 하던 한기악 선생님은 공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다. 2.8동경유학생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귀국해서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썼어.

3.1운동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이 더욱 교묘해져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상하이로 *망명하게 돼.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도왔단다. 지금의 국회나 다름없는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고, 법무부 위원으로서 입법 활동에도 참여했어. 하지만 임시정부의 파벌싸움에 실망한 그는 귀국해서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일본과 친일파들의 만행을 언론에 보도했어. 물론 협박도 받고 체포되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위해 용기를 낸 거야.

한기악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배워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 중앙학교에 근무하면서 끝까지 일본으로부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켜내려고 애썼단다. 선생님은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독립의지와 자유정신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한단다. 부론의 독립운동가 한기악 선생님을 기억하는 이유야.

*망명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



원주 풀뿌리시민운동, 그 시작

원주 부론에서 일어난 3.1운동 이야기 들어봤니?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일인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이란다. 그런데 3.1운동이 큰 도시에서만 벌어진 만세운동이었을까. 원주에서는 부론면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 부론면 노림리에 노림의숙(구 노림초등학교)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교사인 홍남표와 어수갑이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원주로 가지고 들어왔어. 그리고 3월 22일 노림의숙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거야. 졸업식장에 들어선 학생들과 하객들의 만세 소리가 부론면에 울려퍼졌지.

그렇게 뜨거워진 독립의 열기에 겁먹은 원주군수가 지역을 돌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다녔다는구나. 원주군수가 개최한 강연회 때 노림의숙 졸업생들은 몰래 태극기를 감추고 들어와 군수를 기다렸다 군수가 강연장에 들어서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휘날렸지. 청년들은 당당하게 나서서 군수에게도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요청하였대. 군수도 어쩔 수 없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을 걸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지. 부론의 법천리와 손곡리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주변의 산에 올라 봉화를 피우고 만세를 불렀어.

어떻게 그 산골짜기에서 그런 큰 만세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나라의 뿌리인 농민들이 자유를 되찾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했기 때문이었을 거야. 원주에 풀뿌리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부론의 만세운동이 첫걸음을 떼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론면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부론독립만세기념비도 원주에서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에 세운 거란다. 이 땅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지금도 부론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색칠해 봐요

지광국사탑과 지광국사탑비가 113년 만에 만나 원주 법천사지의 역사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환영의 마음을 담아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교재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를 내거나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내용은 이름과 같이 교재에 실어 드려요.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공양보살



청동제 말



귀면와



치미



은입사 말재갈 멈추개

